

줄탁동기 (茁啄同機)

칼럼



이희용
포천여중 외장

우리사회 어떠한 분야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 성공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공 뒤에는 반드시 어려운 시기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결정적인 도움이나 깨우침을 준 사람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스스로의 노력이 있고 그와 동시에 역량을 발휘해주는 이에 대한 교훈으로 '줄탁동기(茁啄同機)'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불교선종의 중론지도사인 송나라 때 백암록(碧巖錄)에 기록된 말이다.

이 말은 흔히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에 자주 비유되는데 뜻은 보면 이렇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계란껍질을 혼자서 수 없이 쪼아야 하는 줄(茁)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때 어미 닭은 탁(啄)으로 껍질을 쪼아서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의 노력에 힘을 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알 속의 병아리는 어미 닭의 탁(啄)에 의존하여 새 생명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으나 탁(啄)으로만 세상 밖에 나온 병아리는 병이 들어 죽거나 살더라도 건강한 닭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만약 껍질 안의 병아리의 힘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껍질 바깥 어미 닭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병아리는 알 속을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껍질을 경계

로 병아리와 어미닭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일컬어 참사제의 관계를 비유하여 말할 때 곧잘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병아리의 탄생 과정인 줄탁동기(茁啄同機)의 오묘함을 보면서 모든 생명체들은 혼자서 아닌 상호의존과 상호 보완의 삶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 수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나보다.

사람이 저 혼자 잘나서 출세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예로 보자면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현재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일가 친척 이웃 사회 국가 자연을 비롯한 어느 것 하나 현재의 나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나라는 좁은 생활 틀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과 화합하고 배려하고 기여하는 바깥세상에 대한 부리의 줄(茁)의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나 이외의 다른 존재가 부리 쪼임 질을 할 때 서슴없이 달려가 탁(啄)을 해주어 다른 생명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은 모두가 스승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 되기도 할 것인데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름이나 시기심 같은 혼탁이 스며들지 않게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이다.

힘들게 짐수레를 끌고 오르막 길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옆으로 달려가 뒤에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준다면 그 수레는 쉽게 목적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몇 날을 굶어 허기진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준다면 그 사람은 기운을 차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병이 깊어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에게 좋은 말을 전해주어 용기를 얻게 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유익함을 주어 결정적인 역할이 되어주는 행위는 모두가 탁(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력은 줄(茁)이고 그 노력에 힘을 보태고 용기를 주는 것은 탁(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줄탁동기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 관용, 화해, 양보,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은 모두가 스승이고 내 생명의

있는 주변이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끝없는 줄(茁)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남의 완성을 위해서는 든든한 보탬이 되어주는 탁(啄)의 인생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병아리와 어미닭의 본능적 행위에서 터득된 줄탁동기(茁啄同機)는 우리의 삶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줄과 탁의 조화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자 깊이 있는 이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살짝만 도와줘도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기회를 있을 수 있다.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위한 노력은 우리사회 모든 곳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부부(夫婦)사이에서나 사제지간(師弟之間)에도 그리고 기업가의 성공요건에도 적용되며 때로 줄탁동기(茁啄同機)의 교훈은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다.

아무쪼록 마음을 가다듬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행동감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자유기고

만이



홍경자
주부 명예기자단 이사

휘영청 달이 밝다. 추석연휴가 시작되자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과 대목을 보려는 장사꾼들의 손길은 곳 당의 신명난 무속인처럼 바쁘고 제사준비를 해야 하는 여인네들의 손길은 쉴 틈이 없다.

옛날부터 말뚝은 살림말뚝이요, 말이는 부모님 대신이라는 말이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나는 함안이씨 집안의 작은집 말뚝이지만 큰집의 형님은 종손의 맏며느리인지가 그 많은 제사상과 손님 치르기가 큰 잔치를 치르는 격이니 매년 2회씩 그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나라면 업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난 작은집의 맏이로 시집을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종손의 맏며느리인 형님이 대안하다는 존경심도 생긴다.

한번은 "형님,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선택되었으니 이왕이면 웃으면서 하면 좋지요"라고 하신다. 아하! 이래서 맏며느리감이 따로 있구나 하고 실감을 하게 된다.

우리 집 친정은 카톨릭 집안이기엔 추석날 제사를 성당의 미사로 대신한다. 하지만 며느리가 없는 친정집에 시집간 딸들의 방문은 손님 일뿐이기에 언머가 항상 힘드시다. 그래도

항상 가보면 먹을 음식이 한가득 하다.

"엄마 혼자 이걸 다 하셨어요?" 하고 물으니 "아니, 큰 언니가 미리 와서 장도 바꾸고 용돈도 주고 갔단다"라고 한다. 그랬다! 며느리가 없는 친정 집에 동생들이 찾아오면 편히 쉬고 먹고 제부들에게 술상을 바쳐 오붓한 명절을 보내도록 말뚝인 큰 언니가 미리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언니는 무슨 때면 되면 항상 언머의 운전기사가 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것이다. 같은 말이지만 넷째 딸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챙기는 것을 보면 말뚝인 큰 언니는 나와 다른가 보다.

부유하지 못한 집안의 맏이들은 마음이 부자여야 한다. 부모님도 생각해야 하고 동생들이 잘 살아 주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다. 동생들이 힘들 때면 돈이 많아서 보태줄 수 없음을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잡아주지만 정작 본인이 힘들 때면 혼자서 견뎌야 하는 자리가기에 마음이 넓고 깊어야 한다.

그런 맏이들은 부모님에겐 든든한 기둥이 되고 동생들에게는 기둥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통지가 된다. 그 기둥이 바로 서 있다면 그 집안의 형제자매 손자 손녀들까지도 행복한 명절을 보낼 것이다.

말 다셨던 우리 집의 만사위

였던 큰 형부는 기둥뿌리가 흔들려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학생인 처제가 4명이었고, 아들과 딸이 4명이니 모두 8명을 키워 시집 장가 보내야 하는 처지였으니 그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 장인이어린 연로하셔서 집안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노릇을 해야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가끔 "저 녀석을 어서 빨리 보내고 숙제만 끝나면 처제 늦둥이 아들도 키워줄게" 하면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처제들을 모두 시집보내다보니 이력이 나신 걸까? "고마워요, 형부"라고 답하지만 언젠가 어깨를 보니 많이 구부러졌음을 보았고 깊은 그 마음만 받을 뿐이다.

만이는 다르다. 소리 없는 활약이 있기에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막내도 부모님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지 모른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힘든 것을 내뉘어려니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종손의 맏며느리가 있기에, 그리고 집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족들의 화합을 준비하는 맏이들의 넓고 깊은 마음은 둘째나 셋째가 따르지 못하는 부분임을 시인한다. 부디 맏이들에게 조상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동글동글 커다란 달님에게 빌어본다.

자유기고

누군가가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는 계절

무더위와 장마가 지나가고 난 뒤 드높게 맑고 파아란 하늘이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알려준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 아직 들뜬다는 벼가 이삭을 숙이지 않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민족 대이동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주변상황과는 달리 여러 가지 사정들로 자녀들과 연락조차 닿지 못하고 쓸쓸한 명절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며칠 전 어렵게 생활하시는 가사·간병 대상자 택을 방문하였다. 병마에 시달리며 홀로 또는 부부만 외로이 생활하시는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용기와 기백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리도 반가워할까. 의정부보호복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하여 16명의 보훈도우미를 매일 지역별로 파견하여 목욕, 청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거부하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보훈 도우미를 팔처럼 며느리처럼 의지하고 기다리신다. 그만큼 누군가의 손길이 그림그리고는 부부만 외로이 생활하시는



안상훈
의정부보호복지원 복지과장

누군가가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이 가을... 그 분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기 위해 직원들이 섬음을 모아 추석 송편을 빚어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하였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보훈 도우미들이 있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그 분들 말씀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며 또 다른 분들을 찾아간다.

자유기고

광복 63주년, 우리 땅 독도

홍승희

의정부보호복지원 복지과장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이 구한말 외세의 침탈로 국력이 약화되어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치욕에서 벗어난 지 올해로 63주년이 된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 선열들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목숨까지 바쳐 투쟁하였다.

일제치하 36년간 일본의 경제적 수탈과 압박, 핍박 등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받은 인적, 물적 피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와 반대로 일본은 오늘의 부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다.

반성은 커녕 반복되는 역사왜곡 뿐만 아니라 독도영유권 주장 등 끊임없이 군국주의의 침략 근감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 국민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위안부나 역사왜곡처럼 국제사회의 동정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 입장을 지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

이 따른다.

막대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무기로 영토 확장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수시로 망발하는 일본의 허위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처와 함께 단결된 국민의 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일본의 주권 침탈과 영토침략에 대응하여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에 대한 후손들의 당연한 자세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다.

미국이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던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변경표기하기로 하였다든 보도 이후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처음보다 많이 사그라든 느낌이 든다.

독도는 미국 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우리를 대신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또 다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다른 곳에 돌린 채 독도를 잊고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마음을 단속해야 할 것이다.

전기안전관리!!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 안병호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최첨단 측정 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점검대상 : 학교, 관공서, 빌딩,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점검 및 A/S 대책회의



변압기 정밀점검

고객의 전기시설물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기업

회사명 :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TEL : 031)541-9111~4 FAX : 031)541-9115